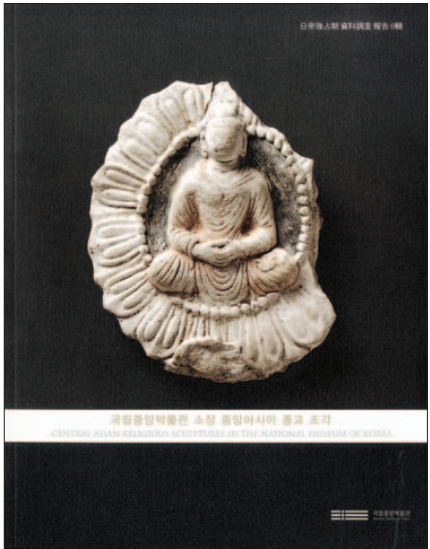


국립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편> 발간

묘타니 고즈이 중앙아시아 탐험대 수집품 수록



국립박물관은 중앙아시아의 불교 조각 등을 모은 자료집 <중앙아시아의 종교 조각>을 간행했다. 그림은 책 표지.

중앙아시아 불교조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명나)이 2013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원들이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보고서(2책)와 정기간행물(3책)을 간행했다. 그 중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편> 보고서는 불교 사원에 안치되거나 그 내부를 장식했던 종교 조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소장품에 대한 전면적 조사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2013년 봄 발간된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편>에 이은 두 번째 자료집이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유물은 20세기 초 일본의 승려 묘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가 조직한 중앙아시아 탐험대의 수집품이기도 하다.

당시 수집된 유물은 일본으로 옮겨졌지만, 1914년 묘타니가 니시혼간지(西本願寺)의 문주(門主)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 일부 유물은 고베에

위치한 오타니의 별장 니라쿠소(二樂荘)에 보관되어 있다가 별장을 인수한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 1869~1965)가 이를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했다. 1916년 우리나라에 반입된 오타니의 수집품은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어 현재까지 학계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종교 조각으로 분류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아시아 소장품은 대부분 작은 단편이어서 그동안 벽화나 무덤 출토품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자료집은 기존에 알려진 일부 소장품과 다수의 미공개 소장품을 함께 소개하여 향후 연구의 기반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수록된 유물은 총 735점으로, 토제 725점, 목제 6점, 금속제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불교 사원에 안치되거나 그 내부를 장식했던 유물로, 현재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투루판, 쿠차, 호탄, 그리고 간쑤성(甘肅省)의 둔황에서 출토된 것이다.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학술적, 조형적으로 주목되는 85점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새로운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제2장은 과학적인 분석으로 소조상 34점과 금동불 3점에 대한 현미경 관찰, X선을 이용한 광학적 조사, X선형광분석,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수록하여 역사적, 미술사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1장에 수록되지 않은 나머지 유물을 형식적으로 분류하여 정리, 제시했으며, 기존의 관련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출토지 추정 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한편,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산천 지리와 도성의 경관을 소개한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 보고서도 간행했다. 정혜숙 기자

자비의 마음 나누는 평화의 선율

피리 연주가 나왕케족 데뷔 25주년 기념 음반 발매



피리 연주가 나왕케족은 1988년 데뷔 이후 힐링과 명상을 담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평화의 소리를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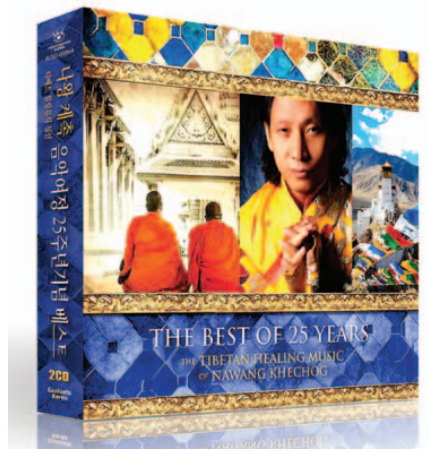
신비롭고 영적인 선율로 영혼을 깨우는 피리 연주가 나왕 케족의 데뷔 25주년 기념 2CD베스트 앨범이 콘텐트코리아에서 나왔다. 힐링과 명상, 티베트의 영적인 문화유산이 담겨있는 그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7백만 장이 팔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앨범에는 그간 발매된 9장의 음반에서 엄선된 불멸의 힐링명상곡 베스트 22곡과 3곡의 신곡이 포함되어 있다.

앨범에는 티베트 출신 및 서양의 최고 뮤지션들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북미 인디언 대나무 피리연주의 세계 최고 거장인 카를로스 나가이, 세계적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피터 케이트, 그래픽상 수상자인 첼리스트 데이비드 달링 등 전세계 명상음악계의 최고거장들과 콜라보레이션한 힐링명상곡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앨범에서는 티베트와 북미 인디언 대나무 피리, 통찰, 티베트 울림명상 주발, 타블라, 다마루, 텡샤, 달부, 디저리 두, 샴빠나, 마립바, 우드, 쟈메, 불보, 카우벨,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퍼커션,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혹은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악기연주와 첼링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몇 개의 곡들은 순수 연주곡으로 솔로와 듀오 또는 여러 뮤지션들과 콜라보레이션한 곡이다. 그리고 몇 곡은 나왕 케족이 첼링한 곡이며, 2곡은 달라이 라마의 리드 첼링을 따라 수천 명의 의식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장엄한 첼링곡이다.

서로를 영혼의 형제라 부르며 류시화 시인은 그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귀를 통해 존재까지 관통하는 그의 피리 곡은 티베트 고원의 심오한 풍경이 그려지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속삭이는 숨결에서 영적 깊이가 느껴진다. 입술 속에 수많은 작은 새들을 숨겨 놓은 것처럼

7백만장 팔리며 큰 사랑 받아온 9장 음반 베스트곡과 신곡 실어 서양 최고 뮤지션들 함께 작업 연민과 헌신의 신성한 사랑 구현



9장의 음반에서 엄선한 데뷔 25주년 베스트 음반이 콘텐트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신비롭고 자유로운 그의 연주는 한순간에 우리를 깊은 고요로 인도한다.”

선(禪)수행을 한 미국의 부르크린대학 석좌교수이자 시인인 알렌 긴스버그(Allen Ginsberg)는 “나왕 케족이 가진 희귀한 음악적 재능과 창의성에 대해 전통적인 티베트의 명상수행과 마음수련의 결과”라며 “그의 음악은 선적이어서 부처님의 대가설법처처 청중의 근기에 알맞게 자발적인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는 자비, 친절, 사랑, 헌신, 평화, 행복과 사명에 대한 영적 진실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음악연주자를 초월하는 중요한 그 무엇으로 신성한 사명, 영적인 연민과 헌신이 담긴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마음 고요와 평화의 소리, 선율과 리듬이 되어 온 세상에 번져나가 우리들에게 살아서 숨쉬는 힐링명상곡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자유 티베트(Free Tibet)와 이 세상에 평화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염원하며 노래한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티베트 자유와 평화 알리는 지구촌 대사 나왕케족



나왕 케족은 1988년 1집 '사운드 오브 피스' 앨범으로 데뷔했다.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한 그는 오

선지 위에 작곡하거나 악보를 보며 연주한 적이 없으며, 이미 연주한 곡을 다시 연주할 때 마음만 정하면 자연스럽게 재현이 될 만큼 천부적 재능을 지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사운드 오브 피스(1988)' '리듬 오브 피스(1989)' '콰이어트 마인드(1991)' 등 초창기 앨범을 엮은 3CD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다.

지난 25년 동안 그는 전세계에 티베트 음악을 널리 전파하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알리는 지구촌 대사로서 칭송 받고 있다. 우리의 아리랑 선율에 바탕을 둔 명상곡 'Universal Compassion', 세계명상음악계 최고거장들과의 콜라보 연주와 첼링, 신비하고 영성적인 하이 톤의 여성 보컬의 허밍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곡들로 그는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0년 첫 방한한 그는 KBS를 평화콘서트에 참여했으며 MBC수요예술무대(2002), 평화의 소리 콘서트(2004), 나왕케족 초청공연(2005년), 화계사 세계평화 단풍음악회(2007), 월경사산사음악회(2010) 등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동국대 석전 박한영 스님 축제 '가을 힐링콘서트'와 대원사 나왕 케족 초청 탕플스테이 등에서 함께 했다. 2104년에는 자서전 한국어 번역권 발간을 기념해 5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경전에서 만나는 극락, 불화전'

3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전시중인 <묘법연화경>

경전 속 심화형태로 그려진 불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경전에 실린 불화를 모아 전시를 개최한다.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전운영실에서 열리는 '경전에서 만나는 극락, 불화전'에는 총 47권의 책이 전시된다. <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등에 실린 불교의식, 석가 일대기 등 불교 관련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경전에 실린 불보살의

모습 뿐 아니라 수호신, 불경 속 교훈적 장면을 묘사한 그림, 부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그림 등 목판에 새겨 찍은 경판화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청화 대종사 추모 선서화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1월 27일까지

광주 무각사(주지 청화) 로터스갤러리는 1월 27일까지 무주당 청화 대종사 열반 10주기를 추모하는 '고월 박경순 선 서화(禪書畵)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 진주 전남 순천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박경순 작가는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열반송, 발원문, 관음문 등을 그림과 서예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청화 스님 친필 서예 작품

3점도 함께 전시된다. 스승인 한국화가 아산 조방원 선생과의 인연으로 청화 스님을 친견하고 존경해왔던 박 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일반 전시하고는 달라서 작가로서 작품을 쓰는 마음 자체가 남달랐어요. 큰스님의 선시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에도 큰스님의 선시 내용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청화 스님의 '계송'을 옮긴 박경순 작가의 작품.

박경순 작가는 원광대 대학원 서예학과 북경 어언대학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연륙선, 국전 초대작가, 전국여성 휘도대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062)383-0107

정혜숙 기자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1월 24일 마산 아트센터서

영종불교회관 주지 자명 스님이 기획, 제작한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가 1월 24일 오후 7시 마산 3.1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자명 스님은 불교음악과 전통 국악, 그리고 현대적 예술 장르가 결합된 무대를 선보인다. 출연진으로는 자명 스님과 출판 하우 스님, 국창 박윤정 교수, 젊은 국악인 정만훈(예술감독), 시노래 남송가 김차경 등과 소리코리아 예술단원들이 함께한다. 공연료는 무료다. 010-9343-3001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양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龕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黃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龕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도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도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초출 2.배접 3.아교포수 4.도재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쫄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광주(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광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